

□ 제1회 97 대학영화축제

제1회 대학영화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학생들에게 대학영화의 참모습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양캠퍼스의 영화동아리 '그림자놀이'와 '빛사냥'의 작품이 대학영화페어연합 작품전에 초대되었다.

(편집자)

"80년대와 현재의 대학문화는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90년대 현재의 대학영화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동아리나 관객 모두 정체성을 잃고 있다. 이번 영화축제로 관객과 제작자 모두 대학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국영화 '찰리브라운'을 제작한 영화동아리 '빛사냥'의 회장 박현석(제3공학부·3)의 말이다. 그 동안 학교내에서 제작은 됐으나 상영할 공간과 자본이 부족하여 사장될 뻔

했던 필름들이 제 1회 영화축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경인지역 54개 영화동아리들이 주축이 된 대학영화페어연합(대영연, 의장·송실대 사학·3)의 주도하에 열리는 전국규모의 대학영화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로써 대학영화제는 지난해말 열렸던 대학영화제와 전국대학영화제를 합하여 3개가 되었다.

대학영화는 저예산과 8mm 혹은 16mm영화로 대학생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로 대변된다. 일반대중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기존영화를 대신해 실

험적인 성격이 강하며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거리감을 불러일으켜 대학사회에서도 대학영화의 인기는 높지 않다. 이런 거리감을 해소시킬 이번 영화축제는 현대대학영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각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의견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학영화페어연합 작품전', '대학영화 회고전' 그리고 '출품전' 등으로 꾸며질 제 1회 대학영화축제는 특히 우리학교의 동아리 '그림자놀이'(서울캠퍼스)와 '빛사냥'(수원)이 기예에 문



▲80년대 중반 한국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담은 이화여대 '누에의 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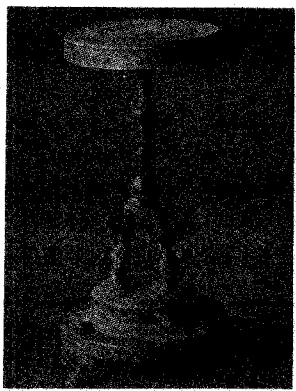
대중영화 위에 꽃핀 실험정신

대영연 주도... 제1회 영화축제 선보여

만든 곳	제목	양식	제작년도	길이(분)
중앙대 (본영)	호린사선문	VHS	96	5
인천대 (짧은영상)	영화	VHS	96	22
외국어대 (빛모습)	어쩌란말인가, 거지	VHS	96	18
경희대 (그림자놀이)	Tech No Man	VHS	96	10
고려대 (돌빛)	낙서	VHS	94	14
연세대 (프로메테우스)	버스안에서	VHS	96	18
인하대 (동대)	하루살이	VHS	96	30
건국대 (햇살)	주식회사 문학과 지성	VHS	95	30
송실대 (영사위)	조명을 든 여자	16mm	96	35
한성대 (영화드림)	그림자	16mm	96	11
경희대 (빛사냥)	ET를 기다리며	16mm	95	9
산업대 (맑은그림)	마지막 낙원	16mm	96	8
	찰리 브라운	16mm	96	14
	어두운 방	16mm	96	22
		16mm	96	10

시리즈-경희의 유산을 찾아서

① 청동 쌍사자 쉼대



오일환, 이연의
(중앙박물관 연구실)

경희대학에는 사자상이 많이 있다. 먼저 본관 앞에 두 마리의 사자조각상이 있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에 예전에 경희대학에서 길렀던 사자가 박제되어 있고, 자연

사 박물관 앞의 광장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정신과 개척정신을 상징하는 사자가 한 마리 있다. 그 외에 도서관 건물 4층의 외벽 가운데에 사자의 머리 모양으로 된 조각이 1개 붙어 있다. 이렇게 볼때 경희대에는 다섯 사자가 있는 셈이다.

특히 사자를 학교의 상징으로 택한 것은 그것이 동물중의 왕이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사자는 신중의 신, 태양을 상징한다. 따라서 사자로 상징되는 경희의 전아는 태양처럼 빛나는 이 사회의 지도자임을 의미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의 전통문화에서도 사자는 위엄과 용맹의 상징이었으며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고가 반영된 대표적인 유물들이 고려시대의 청동은입사향로 두쌍이나 쌍사자 석등, 4사자 3층석탑 등이다.

경희대 박물관에서는 고려시대의 대표적 청동 유물인 사자석기 향로와 청동쌍사자

쉼대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청동쌍사자쉼대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국보급에 버금가는 유물이다.

사자는 정벌을 수호하는 신장을 표상하기도 하며 쌍사자는 시작과 끝을 잇는 반야의 지혜와 그 너머의 영원한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천연자원이나 국방력 또는 경제력이 한 사회수준의 지표가 되던 시대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이 우리 민족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반만년 역사를 지탱해온 얼을 바탕으로 우리 경희인은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또 경희의 전아로서 끊임없이 영원한 지혜를 탐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자처럼 진정한 위엄과 용맹을 가지고 이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혀사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Tech No Man'과 대중매체에 의해 갇혀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린 '찰리 브라운'이 2백여 작품 중 15편 안에 선정되어 작품전에 초대된다. 이 작품전은 동성애, 기계문명, 부랑자 등의 소재를 담고 있으며 94년부터 96년까지 제작된 총 15작품으로서 대학영화의 현재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대학영화회고전은 80년대와 93년까지의 작품들로 꾸며진다. 남북학생회담을 하기 위해 조국순대행진의 여정과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담은 대영연의 공동 작품인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의 조국은 하나다'를 비롯해 10편의 작품이 상영되어 작품전과 함께 80년대와 90년대의 대학문화를 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겨울부터 이번 해 2월까지 제작된 영화들로 꾸며질 신작전, 영화학과 작품전 등의 영화상영과 세미나, 시나리오 공모전, 일일주점 그리고 과거 동아리 영화제 포스터와 사료집, 팸플릿 등을 전시할 전시회 등의 행사도 눈길을 끈다.

지난 17년간의 대학영화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영화제는 대학영화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학영화를 감상하기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중들에게 대학영화의 본질을 검증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태권 기자>

문화단신

이정식 & 서울재즈프러트 창단 2주년 연주회

한국적 재즈음악을 가장 잘 소화해내는 이정식이 가수 박정운, 장필순과 함께 재즈 콘서트를 갖는다.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의 주제가 등이 연주되며 박정운, 장필순의 히트곡도 함께 공연된다.

3월 4일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 514-4728

제2회 한·미·일 켈트전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은 켈트를 소재로 한 작품전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한·미·일 켈트협회와 국내를 비롯한 미국, 일본의 작품들 70점을 전시하는 이번

작품전은 벽걸이, 침대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켈트 여러가지와 바느질 방법 등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 561-9615

유익종 콘서트

오랜 세월, 변함없는 음악을 보여준 유익종의 콘서트 가 오는 10일까지 곤이아트홀에서 열린다. 4집 음반 '만추'의 발매에 이어 '삼분의 일'이라는 음반을 내놓은 그의 이번 콘서트는 꾸밈없는 그의 노래를 듣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곤이아트홀 ☎ 742-4639

인극평

□ 유 리 동 물 원

암담한 현실 속의 신기루

'고래사냥'에 이은 옛 시절 회상작품

김명화
(연극평론가)

'유 리 동물원'이라는 단어

에서 어떤 이미지 가 떠오르는가? 진열장 위에서 아름답게 반짝이지만, 실상은 숨도 쉬지 않는 차가운 무생물? 아니면 순간 대면 깨어질 것 같은 예민하고 섬세한 유리 결정체? 태내시 윌리엄스의 '유리 동물원'은 쉽게 부러질 것 같은 예민한 유리 동물에 빔대어 우리를 모두의 꿈과 삶에 대해 짚어본 작품이다. 멀리서 반짝이는 꿈과 가까이서 숨도 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우리를 짓누르는 삶에 대해.

작품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한 가족을 다룬다. 무대 위에 사진을 제외하곤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아버지는 차가운 삶을 벗어나 반짝이는 꿈을 향해 가족을 떠난 자이다. 달리 말해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가족이라는 지긋지긋한 채무를 버렸고 진열장에 불박한 유리 동물이 아니라 삶과 근육을 움직이며 넓은 세상으로 달아나버린 자유인인 것이다.

그러나 가난과 가족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못한 나머지 인물들은 부수길 것 같은 위태로운 삶의 포로가 된 채, 꿈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유리 동물들이다. 화려한 처녀 시절을 꿈꾸는 고집세고 수다스러운 어머니, 아버지처럼 넓은 세상을 꿈꾸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아들, 세상을 등진 채 진열장의 유리 동물들 만지작거리며 집에서 숨어 지내는 절름발이 딸(딸의 소원은 세상 속으로 뚝뚝이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 작품은 가난이나 시련과는 거리가 먼 풍요로운 90년대 후반에 다시 공연되고 있다. 이 작품을 기획한 '환퍼포먼스'의 작품 경향이 뮤지컬 '고래 사냥'에서 '유리 동물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의 공연은 수미일관된 방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힘들었어도 꿈을 잃지 않았던 한 시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일 것이다.

문제는 과거를 추억이 아닌 현재로 전환시켜야 하는 공연 예술의 속성에 있다. 연극이란 관객앞에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는 예술이기에 과거를 추억이 아니라 현재로 재창조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작진은 과거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현재 자신들의 시각과 과거 자체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경제 공황이라는 찌든 시대에 윤기 있게 그려진 인물들, 예를 들어 '목욕탕 집 남자'의 둘째 며느리처럼 사랑스러운 수다쟁이로 그려진 어머니(윤여정 연기)나 현미경을 들여다 대지 않으면 장점이 눈에 들어다 보이지 않는 절름발이 처녀가 첫 눈에 사랑스러운 처녀로 그려진 것은 아마도 그러한 혼란때문이었으리라. 덕분에 무대는 인물들이 뿜어내는 생기로 빛나지만 그 매력에 가려 꿈의 반짝거림은 사라지고 만다. 꿈의 반짝임은 암담한 현실 안에서만 보이기 때문이다.

"21세기 평생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 1997학년도 봄학기 강좌안내 ◎

현대 사회를 지식정보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의 원천인 물리적인 힘이 '지식' 및 '정보'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도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필요는 해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으며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원은 다이나믹한 사회에서 요청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아의 개발은 물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품격 있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교육환경, 현실과 밀접하게 연계된 실용교육은 여러분의 육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열린 사회 열린 교육을 선도하는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장 김 옥 경

□ 전문 지도자 양성과정

- 논술 전문 지도자
- 지역사회 지도자
- 방과 후 아동 지도자
- 치매 간호 전문인
- 스포츠댄스 지도자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 관광통역안내 전문인
- 클라워 앤 아트 지도자
- 외식산업 컨설팅
- 디지털 영상편집 디자이너
- 디지털 사진 전문가
- 사진 예술 전문가

□ 예술 교육과정

- 유화 및 수채화
- 서예교실
- 실내 디자인과 코디네이션
- 꽃 예술과 디자인
- 연정형 가곡교실
- 성악교실

□ 보건 교육과정

- 생활 한의학

□ 교양 교육과정

- 건강 가족 상담교실
- 감성지능 EQ 개발 학습
- 새와 자연 탐조
- 박물관과 역사 기행
- 명심보감
- 생활 속의 역철학
- 주역과 동양 문화
- 생활과 법률
- 서정법 수업교실
- 시 창작 교실
- 문학 속의 여인들

□ 사회체육 과정

- 스포츠 댄스
- 다이어트 무용
- 아동 리듬체조
- 점도교실

□ 컴퓨터 교육과정

- 컴퓨터 길잡이
- 윈도우와 엑셀
- PC 통신과 인터넷

□ 어학 과정

- 생활 영어(초급/중급/프리토킹반)
- 생활 일어
- 생활 중국어

□ 입학안내

① 모집일정

- 입학 전형 : 97.2.17~3.8
- 1학기 강좌 기간 : 97.3.10~7.4

② 입학자격

- 성별·연령·학력·경력에 제한 없음
- 접수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

③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본 교육원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④ 등록 및 수강신청

- 원서 접수와 수강료 납부로서 등록 완료
- 수강료는 과정별 별도책정(*연구비 15,000원)

⑤ 강의안내

- 각 강좌 수강 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음.
- 특강·야외세미나·발표회·전시회·체육대회 실시

⑥ 특기사항

- 등록후 교육원생증 발급
- 과정 이수 후 수료증 또는 자격증 수여

◎ 문의전화 961-0870~3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